

물리치료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관리실태

안동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이 승 주

대구보건전문대학 치과위생과
조 명 숙

Abstract

A Survey on Knowledge and Control on Oral Health in Physical Therapist

Lee, Seung Ju, R. P. T., M. P. H.

Dept. of Physical Therapy, Andong Junior College

Cho, Myung Sook, D. H., M. P. H.

Dept. of Dental Hygiene, Taegu Health Junior College

To investigate knowledge and control oral health in physical therapis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76 physical therapists in Kyungsang-pook province from 27th, June to 15th, July, 1992. 107(70.9%)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The physical therapists who knew No. of deciduous teeth were 42.1%, the respondents who knew exchange times of deciduous teeth were 77.6%, the respondents who knew eruption time of permanent teeth were 29.0%, the physical therapists who knew causes of dental caries were 86.9%, the respondents who knew a common preventive method of dental caries were 46.7%.

The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 of preventive dental care were 57.9%, the respondents who brushed teeth in 3 times or more everyday were 69.1%, the respondents who brushed teeth after every meal were 72.0%, the respondents who brushed teeth with rolling method were 52.3%.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a dental treatment were 69.2%. The respondents who refused a dentist's advice were 37.5%, the reason was not to feel need, the respondents who liked all food were 68.2%.

It was revealed by this survey that a short of a common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and the physical therapists brushed teeth with a bad teeth brushing method. So it is need a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for the physical therapists, need the cohort study continuously.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성 적
 - IV. 고 찰
 - V. 요 약
- 참고문헌
부 록

I. 서 론

치아상실의 주된 질환으로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들 수 있다. 치아우식증은 치질 중 무기질이 탈회되고 유기질이 파괴되어 치아조직의 결손을 초래하는 만성 축적성질환이며(김주환, 1984), 치주질환은 치은과 치아지지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성인에서 많이 발생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인병이 되었다(백성호, 1973). 이에 따라 치아우식증의 효율적인 관리와 치주질환의 예방은 오늘날 구강보건 관계자들의 중대한 당면 과제이다.

치아우식증의 원인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탄수화물의 섭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김주환 등, 1979), 설탕, 청량음료 등과 같은 단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치아우식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했다(Shaw 등, 1979; Harold 등, 1984; 여운택, 1986; 이은숙, 1989).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태(dental plaque)는 치아표면 침착물 중 치석의 전단계인 석회화가 안된 연한 상태의 침착물로서 주성분이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관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올바른 치솔질이다(Bibby, 1975; Zander, 1950; Darling, 1952; Glickman, 1966; 이원용, 1975). 올바른 치솔질은 치태를 치아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발생을 예방하며, 치솔질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치태지수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Bear, 1975; Ainamo 등, 1979). Hein

(1954)은 치솔질을 자주하면 치아우식증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Nizel(1972)은 올바른 치솔질과 식습관이 치아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고 했다. Glickman(1966)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치솔질이지만, 치솔질의 효과를 높일려면 치솔질 방법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arold 등(1984)은 치아에 관한 지식이 우식치아 및 처치치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강부월(1986)은 유치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조사에서 효율적인 국민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강보건활동 교육대상을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구강보건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보건요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정도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타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상북도회에 등록된 회원 총 176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1992년 6월 27일(제 3 회 경상북도 물리치료사 학술대회 날짜)에 연구자가 학술대회장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참석하지 않았던 회원들에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일간 우편을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그 결과 회원 총 176명 중 소재가 불명확했던 17명과 설문지 응답내용이 부실했던 8명을 제외한 151명 중 107(7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내용과 분석은 설문지 회수가 가능했던 107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성, 연령, 흡연여부 및 흡연량,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구강보건관리방법, 치과진료 경험유무, 평소 식습관 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성적

조사대상자 107명 중 성별 분포는 남자가 35.5%, 여자가 64.5%였고,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74.8%, 30세 이상이 25.2% 였다. 흡연여부는 남자 38명 중 흡연자는 57.9%, 비흡연자는 42.1%였고, 여자는 모두 비흡연자였다. 하루 흡연량은 20개피가 86.4%, 20개피 이상이 13.6%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No.(%)
Sex	Male	38(35.5%)
	Female	69(64.5%)
	Totla	107(100.0%)
Age	20~29	80(74.8%)
	30~39	24(22.4%)
	40≤	3(2.8%)
	Total	107(100.0%)
Smoking	Male Yes	22(57.9%)
	Male No	16(42.1%)
	Total	38(100.0%)
	Female all No	69(100.0%)
Amount of smoking	≥20	19(86.4%)
	20≤	3(13.6%)

유치의 수에 대한 지식여부에서 20개라고 올바르게 답변한 응답자가 42.1%였고, 오답자가 57.9%였다(Table 2).

Table 2. Knowledge on No. of deciduous teeth

Variable	Category	No.(%)
No. of deciduous teeth	20	45(42.1%)
	10	12(11.2%)
	15	18(16.8%)
	25	32(29.9%)
	Total	107(100.0%)

유치의 교환 횟수에 대한 지식 중 1회라고 바르게 답변한 응답자는 77.6%로 오답자 22.4%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Knowledge on exchange times of deciduous teeth

Variable	Category	No.(%)
Exchange time of deciduous teeth	1	83(77.6%)
	2	17(15.9%)
	3	3(2.8%)
	No exchange	4(3.7%)
	Total	107(100.0%)

영구치의 맹출시기에 대한 지식여부에서 6세라고 올바르게 답변한 응답자가 29.0%로 오답자 71.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Knowledge on time of permanent teeth eruption

Variable	Category	No.(%)
Time of permanent teeth eruption (years)	6	31(29.0%)
	3	19(17.7%)
	4	3(2.8%)
	8	54(50.5%)
	Total	107(100.0%)

치아우식증의 발생원인에 대한 지식 여부에서 구강상태의 불결 및 단음식 때문이라고 답변한 정답자가 66.9%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유전적이다가 1.9%, 음식과 무관하며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가 9.3%, 모르겠다가 1.9%로 나타났다(Table 5).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치솔사용이라고 바르게 대답한 응답자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35.5%, 불소사용이 10.3%, 충분한 영양섭취가 3.7%, 설탕 미섭취 및 모르겠다가 각각 1.9%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5. Knowledge on the cause of dental caries

Variable	Category	No.(%)
Cause of dental caries	Bad oral hygiene & sweet food	93(86.9%)
	Heredity	2(1.9%)
	Microorganism	10(9.3%)
	Unknown	2(1.9%)
	Total	107(100.0%)

Table 6. Knowledge on the preventive method of dental caries

Variable	Category	No.(%)
The preventive method of dental caries	Brushing	50(46.7%)
	Use fluoride	11(10.3%)
	Intake of limited sugar	2(1.9%)
	Regularly oral examination	38(35.5%)
	Intake of sufficient nutrition	4(3.7%)
	Unknown	2(1.9%)
Total	107(100.0%)	

예방치과처치 실태조사에서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57.9%로, 없다면 경우 42.1%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7).

Table 7. The experience degree of preventive dental care

Variable	Category	No.(%)
The experience degree of preventive dental care(times)	3 or more	14(13.1%)
	2	14(13.1%)
	1	34(31.7%)
	Nothing	45(42.1%)
	Total	107(100.0%)

하루에 치솔질 횟수는 3회 또는 그 이상이 69.1%로 가장 높았고, 2회가 27.1%, 1회와 닦

지않을 때도 있다가 각각 1.9%로 나타났다 (Table 8).

Table 8. Times of tooth brushing

Variable	Category	No.(%)
Brushing times (per day)	3 or more	74(69.1%)
	2	29(27.1%)
	1	2(1.9%)
	Sometimes no brushing	2(1.9%)
	Total	107(100.0%)

치솔질 시기는 매식 후 치솔질을 한다가 72.0%로 가장 높았고, 아침·저녁식사 후가 18.6%였으며, 밤에 잠자기 전과 아침식사 전이 각각 4.7%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Time of tooth brushing

Variable	Category	No.(%)
Time of tooth brushing(per day)	After every meal	77(72.0%)
	Before sleeping	5(4.7%)
	After breakfast, dinner	20(18.6%)
	Before breakfast	5(4.7%)
	Total	107(100.0%)

치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면서 닦는다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아래로 닦는다가 30.8%, 좌우로 치아를 닦는다가 16.8% 순이었다(Table 10).

Table 10. The method of tooth brushing

Variable	Category	No.(%)
The method of tooth brushing	Rolling method	56(52.3%)
	Scrubbing method	18(16.8%)
	Vertical method	33(30.8%)
	Total	107(100.0%)

치과처치 경험유무에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69.2%였고, 없다고 한 응답자가 30.8%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Experience of dental treatment

Variable	Category	No.(%)
Experience of dental treatment	Yes	74(69.2%)
	No	33(30.8%)
	Total	107(100.0%)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모두 받느냐는 질문에 받는다고 한 응답자가 40.2%로,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59.8%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Acceptance of dentist's advice about oral treatment

Variable	Category	No.(%)
Acceptance of dentist's advice	Yes	43(40.2%)
	No	64(59.8%)
	Total	107(100.0%)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지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서가 37.5%로 가장 높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28.1%, 기타가 21.9%, 시간이 지나면 나올것 같아서가 7.8%, 돈이 없어서가 3.1%,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이다가 1.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The reason that refused dentist's advice about oral treatment

Variable	Category	No.(%)
The reason that refused dentist's advice	No time	18(28.1%)
	Unfeeling need	24(37.5%)
	No money	2(3.1%)
	Unkind	1(1.6%)
	Natural healing	5(7.8%)
	Others	14(21.1%)
	Total	64(100.0%)

평소의 식습관은 골고루 좋아한다고 68.2%, 야채를 좋아한다고 21.5%, 고기를 좋아한다고 4.7%였으며, 부드럽고 단음식을 좋아한다고 5.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Habits of daily food

Variable	Category	No.(%)
Habits of daily food	Like all food	73(68.2%)
	Like meat	5(4.7%)
	Like vegetables	23(21.5%)
	Like sweet food	6(5.6%)
	Total	107(100.0%)

IV. 고 찰

물리치료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상북도회에 등록된 회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소재가 불명확했던 17명과 설문지 응답 내용이 부실했던 8명을 제외한 151명 중 107명(70.9%)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치수를 묻는 문항에서 20개라고 정답을 답변한 응답자가 42.1%로, 이원용 등(1975)의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태도 및 지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답자의 성적 46.1%와 비슷하였으나, 강부월(1986)의 유아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수준 실태조사에서의 성적 55.8%와 조명숙(1991)의 미취학 아동의 유치우식경험도에 관련된 보호자의 지식, 실천에 관한 조사에서의 성적 75.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에 비해 후자의 연구대상이 유치원교사와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로서, 유치열기의 아동에게 관심이 더 많은 대상이라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의 교환횟수에 대한 지식 중 1회라고 응답한 정답자가 77.6%로, 이원용 등(1975)의 성적 88.7%, 임광호(1984)의 보호자의 구강관리태도와 유치열기 아동의 치태지수와의 연구에서의 성적 87.3%, 그리고 조명숙(1991)의 성적 8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영구치의 맹출시기를 묻는 문항에서 6세라고 응답한 정답자가 29.0%로 강부월(1986)의 성적 84.9%, 조명숙(1991)의 성적 50.0%보다 낮게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치아우식증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상태의 불결 및 단음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정답자가 86.9%로, 이한봉(1975)의 연평중학생의 구강보건실태 조사연구에서의 성적 68.7%보다 높았고, 최철희(1979)의 아동의 유치관리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정도 및 간호에 대한 연구에서의 성적 81.8%, 임광호(1984)의 성적 84.8%와 비슷하였으며, 강부월(1986)의 성적 98.8%와 조명숙(1991)의 성적 91.0%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비교적 높은 지식수준을 보여 경제사회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uany 등(1972)은 치아우식증이 있는 학생들이 음식을 자주 먹고 소다수와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빈번히 섭취한다고 하였고, Hankin 등(1973)도 사탕과 껌의 섭취빈도와 우식경험 영구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Bibby(1975)는 설탕의 형태와 섭취빈도가 섭취량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한 연구결과로 보아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음식의 제한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치솔사용이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46.7%로 나타나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치솔질의 목적과 치솔질방법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치과 처치를 받은 경험유무에서 57.9%가 1회 이상 처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조명숙(1991)의 성적 39.4%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보건요원들이라 예방치과와 조기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루 중 치솔질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3회 또는 그 이상 치솔질을 한다고 한 응답자가

69.1%로, 박광진(1974)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실태 조사에서 하루 3회는 1.8%, 임광호(1984)의 조사에서는 하루 3회가 20.3%, 조명숙(1991)의 성적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예상 했던대로 의료종사자가 구강청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대상자 중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적이 높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하루 중 치솔질 시기는 매식 후 치솔질을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2.0%로 높게 나타나 강부월(1986)의 성적 74.4%와 비슷하였다. 치솔질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로 회전하면서 닦는다가 52.3%로, 조명숙(1991)의 성적 58.7%와 비슷하였으며, 성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좌·우로 치솔질을 한다가 12.2%를 차지하고 있어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솔 사용법에 관한 홍보교육이 요구된다.

치과처치를 받은 경험유무에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9.2%로 이재광 등(1983)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성적 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조사시점 차이와 후자의 연구대상자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경험유무가 많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방문 후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모두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40.2%였고, 권하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37.5%가 필요성을 느낄 수 없어서였다고 했다. 이는 이원용 등(1975)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86.9%가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모두 받는다고 응답한 성적과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성적 18.3%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병·의원에서 환자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오늘날 의료계가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성적을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으나 영구치의 맹출시기가 6세, 치아우식증의 예방법이 올바른 치솔질이라는 기본지식이 부족했고, 치솔질 방법 중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로 회전하면서 닦는다는 응답자가 52.3% 였으나, 치경부에 마모를 주고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닦을 수 없는 방법인 좌·우로 치솔질을 하는 응답자가 12.2%로 치솔질 사용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구강보전에 관한 기본교육과 일상생활의 치아관리에 대한 홍보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물리치료사의 구강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상북도회에 등록된 회원 176명 중 107(7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치의 수를 알고있는 응답자가 42.1%였고, 유치의 교환횟수를 알고있는 응답자는 77.6%, 영구치의 맹출시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0%, 치아우식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86.9%, 치아우식증의 기본 예방법을 알고있는 응답자는 46.7%였다.

예방치과처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7.9%, 하루 중 3회 이상 치솔질을 한다는 응답자는 69.1%, 매식 후 치솔질을 한다는 응답자는 72.0%,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로 회전하면서 닦는다는 응답자는 52.3% 였다.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9.2%, 치과의사의 치료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9.8%였는데 그 이유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5%였고, 평소에 식습관 중 꿀고루 좋아한다가 68.2%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들이 구강보전에 대한 기본지식과 올바른 치솔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구

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본 연구조사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한 단면조사(cross-section study)이기 때문에 전체 물리치료를 대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강질환과 관련된 유의한 변수를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한 전향적인 연구(cohort study)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강부월 : 유치원 교사의 구강보건 지식수준 실태 조사연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지, 7(1) : 55~62, 1986.
2. 김주환 : 예방치과학회의 당면과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4) : 493~504, 1970.
3. 김주환, 김중배, 김종열, 최유진 : 구강보전학. 고문사, 서울, 1984, 쪽 31~32.
4. 박광진 : 대학생의 구강보건관리실태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2(11) : 841~848, 1974.
5. 여운택, 차문호 : 아동의 치아우식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3(1) : 119~128, 1986.
6. 이원용, 양정강 : 아동의 구강보전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태도 및 지식정도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1) : 57~66, 1975.
7. 이은숙 : 유아원생의 유치우식 경험률 및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p.1~20, 1989.
8. 이한봉 : 연평중학생의 구강보건실태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3(2) : 117~131, 1975.
9. 임광호 : 보호자의 구강보건관리태도와 유치열기 아동의 치태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p. 1~23, 1984.
10. 조명숙 : 미취학 아동의 치아우식증 경험도에 관련된 보호자의 지식·실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p.1~42, 1991.

11. 최철희 : 아동의 유치관리 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정도 및 간호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외과학회지, 17(1) : 65~71, 1979.
12. Ainamo J, Parviainen K : Occurrance of plaque, gingivitis and caries as related to self reported frequency of tooth brushing in fluoride areas in Finland. Community Dental Oral Epidemi, 7(1) : 142~146, 1979.
13. Bear PN : Periodontal diseas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linical study. JADA, 55(5) : 629~634, 1975.
14. Bibby BG : The cariogenicity of snack food and food confection. JADA, 90(1) : 121~131, 1975.
15. Bodecker's CF : The modified caries index. JADA, 26(8) : 1453~1560, 1939.
16. Bullen C, Rubenestein L, Saravia ME, Mourino AP : Improving children's oral hygiene through parental involvement. Journal of Dentistry for children, 55(2) : 125~128, 1988.
17. Duany LF, Zinner DD, Jablon JM : Epidemiologic studies of caries-free and cariesactive students, II : Diet, dental plaque, and oral hygiene. J Dent Res, 51(2) : 727~733, 1972.
18. Glickman I : Preventive periodontics & improving dental practice through preventive measures. The C. V. Mosby Co., 1966.
19. Harold D, Lipsky R, Behar R : Caries, diet, dental, knowledge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 population of 15-years-old Israeli schoolchildren. Community Dent Oral Epidemi, 12(2) : 332~336, 1984.
20. Hankin JH, Chung CS, Kau MC W : Genetic and epidemiologic studies of oral characteristics in Hawaii's schoolchildren : Dietary patterns and caries prevalence. J Dent Res, 52(3) 1079~1086, 1973.
21. Meei-shia C :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urs. J Dent Child, 53(2) : 105~109, 1986.
22. Nizel NE : Nutrition in preventive dentistry. W. B. saunders Co., p.431, 1981.
23. Shaw L, Murray JJ : A family history study of caries-resistance and cariessusceptibility. Brit Dent J, 148(2) : 231~235, 1980.
24. Zadik D : Epidemiology of dental caries in 5-years-old children Israel. Community Dent Oral Epidemi, 6(1) : 91~96, 1978.
25. Zander HA : Effect of penicillin dentrifice on caries incidence in school children. JADA, 40 : 469, 1950.

물리치료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관리 실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물리치료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에 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일괄적으로 처리되므로 선생님의 개인기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 6.

* 다음을 잘 읽으시고 물음에 답하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연령은?(만 세)
3.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비흡연자는 5번으로 가세요)

4. 하루에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20개피 ② 21개피 이상
5. 젓니(유치)의 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개 ② 15개
 ③ 20개 ④ 25개
6. 젓니는 일생동안에 몇 번 교환합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교환 안함
7. 간니(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3살 ② 4살
 ③ 6살 ④ 8살
8. 충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전이다.
 ② 구강상태의 불결, 단음식 때문이다.
 ③ 음식과는 무관하며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④ 모르겠다.
9. 충치(치아우식증)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치솔사용
 ② 불소사용
 ③ 설탕 제한섭취
 ④ 정기적인 구강검사
 ⑤ 충분한 영양섭취
 ⑥ 모르겠다
10. 선생님은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년당)
 (예 ; 스케링, 불소도포)
 ① 전혀없다
 ② 1번
 ③ 2번
 ④ 3번 또는 그 이상
11. 치아는 하루에 몇 번 닦으십니까?
 ① 닦지 않을 때도 있다.
 ② 1번
 ③ 2번
 ④ 3번 또는 그 이상
12. 치솔질은 언제 하십니까?
 ① 아침식사 전
 ② 매식 후
 ③ 밤에 잠자기 전
 ④ 아침, 저녁
13. 치솔질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① 좌우(옆)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② 위 아래로 치아를 닦는다.
 ③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로 회전하면서 닦는다.
14. 치과치료(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모두 받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치과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②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서
 ③ 돈이 없어서
 ④ 치과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⑤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아서
 ⑥ 기타
17. 평소에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① 고기를 좋아한다.
 ② 야채를 좋아한다.
 ③ 골고루 좋아한다.
 ④ 부드럽고 단음식을 좋아한다.